

주일예배
오전 (1부) 8시 30분 7시
오전 (2부) 7시 30분 10시
오후 (3부) 12시 2시
오후 (4부) 2시 12시
금요일예배 (1부) 8시 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주일예배
오전 (1부) 7시 30분 7시 30분
오전 (2부) 10시 10시
오후 (3부) 2시 2시
저녁예배 7시 30분 7시 30분
수요일예배 (4부)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3년 12월 15일 (제720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럼

주적(主敵)도 필요하다

연평도 사건 이후에 우리 국민과 특히 젊은이들에게 달란점 있다. 그것은 우리 국민 전체의 안보의식이 한층 두터워진 것이고, 북한이 주적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젊은 세대들이 안보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훈련이 힘들다고 회피했던 해병대의 지원자가 늘어 경쟁하는 풍경까지 연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피겨여제 김연아는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아사다가 없었으면 나도 이렇게까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아사다와는 예전부터 같이 비교되고 라이벌 의식도 많이 느꼈다. 피하고 싶기도 하지만 동기부여와 자극을 주는 존재다."라고 말했다. 아사다 마오 역시 최근 "김연아가 있었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물론 적이 없으면 편안하다. 그러나 때론 적으로 인해 강하게 되고, 하나 되고, 더욱 노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한나가 주적인 브닌나 때문에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은 일, 입다가 자기를 멸시한 자를 보란 듯이 잡매들을 훈련시켜 힘을 기를 수 있었던 일, 모두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주적이 있다. 바로 악한 마귀와 그의 추종자 귀신이다. 마귀와 귀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들만 없으면 평안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마귀 때문에, 이 귀신 때문에 우리 신앙에 방심할 틈이 없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힘써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일부러 적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상대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분명 에너지를 분출시킨다. 그러나 적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지 말고, 적 덕분에 내가 발전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생각하라.

자녀는 부모한테 달랠 권리가 있다

파라과이(Paraguay) 예수중심교회에 배장소로 쓰고 있는 페티로시(Pettitrossi) 체육관 앞 도로에는 교통질서를 위해 나온 경찰관들, 그리고 계속 드나들며 인디언 마을 등 각지에서 주일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성도들을 태운 버스들, 또한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로 매우 붐볐다. 한국에서 계속 지원되고 있는 선교현금과 153구제물품으로 파라과이 예수중심교회는 출석성도 2,500명을 돌파하며 파라과이 최대교회로 우뚝 서고 있다. 단에 서신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구하지 않느냐?'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청하며 구할 것을 강조하셨다.

"저에겐 두 아들이 있는데, 학창시절에

내 아들인데 한 놈은 돈이 없었나니까 그냥 가버리는 반면, 또 한 놈은 기어코 받아내서 나누어주기까지 하더라 말입니다. 이런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는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중의 부자입니다. 없는 게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지 못할 뿐 아니라 아버지라 하면서도 달라고 하질 않습니다. 분명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요14:14)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시기까지 했지만, 스스로 이 건 되고, 저 건 안 되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이 땅에서 지리적 공상을 떨면서

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입니다. 내일은 능력 밖입니다. 오늘 구하세요. 오늘 두드리세요.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통성으로 기도하셨다. 그러자 처처에서 터러운 귀신들이 드러나 소리를 지르며 요동하기 시작했고, 소경, 귀머거리, 병어리 등 각종 병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고침을 받았다. 그 예수 이름 앞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 아래 것들이 복종한다는 말씀(골2:10)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다.



파라과이 예수중심교회 주일예배(페티로시 체육관)

아침에 등교하려던 큰아들 녀석이 저에게 와서 100\$을 달라 했습니다. 저는 없다고 했고, 큰아들은 알겠더라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계단을 중광거리며 둘째 녀석이 올라오더니 이번엔 200\$을 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없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 녀석은 제 형처럼 인사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저를 붙들고 늘어지며 부자 아버지라고 자랑했는데 안 주면 학교 가서 망신당한다며 끝내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줬습니다. 그런데 서재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이 둘째 녀석이 제 형에게 뭐라 뭐라 하면서 100\$을 주는 게 아닙니까? 참 생각이 깊었습니다. 똑같

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생각조차 안하고 삽니다. 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질 수 없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매달리세요. 돈을 달라, 직장을 달라, 집을 달라 기도하세요. 보리떡을 얻으러 천구 집에 가서 감청했듯이, 재판관을 괴롭게 하던 과부처럼, 계속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

마지막 날, 떠나는 우루과이(Uruguay) 성도들을 모아놓고 목사님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지식 있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셨다. 우루과이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과 이별을 아쉬워했다. 그들을 태운 버스를 보내며 가슴이 내내 찢겼다. 우리가 자주 목사님을 볼 수 있지만, 1년에 한번 볼까 말까한 목사님으로 너무 행복해하는 그들, 그러기에 이별이 더욱 아쉬운 그들의 모습이 파라과이를 떠나와서도 잊히지 않는다. 파라과이와 우루과이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은택전도사

henry8829@naver.com



귀신이 드러나옴동자 단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병어리 할머니가 고침을 받아 모두가 기뻐한다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안수해주셨다



아는 것이 없으면 할 일도 없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24:5~6)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3가지 지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둘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지식이고, 셋째는 실제 공부로 얻는 지식입니다.

저는 이번 파라과이 집회 중, 각 세미나와 교육을 통해 이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입니다. 이 지식의 기초는 나의 신분을 아는 것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가난과 저주와 병 속에서 허락이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럴까요?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병들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겁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앞에 내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첫 부분이 뭐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마 6:9)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십시오. 나를 낳으셨으니 책임지라고 당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간이며, 가장 기초지식입니다. 이 지식 위에 일생 성숙된 신앙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관계의 지식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꿈을 일기를 원하면 꿀통을 발로 차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서는 인격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존심하고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 수도꼭지

처럼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내뱉어서 상대

고사했습니다.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출3:11). 그 때 하나님은 “왜 못해?” 하며 모세를 쥐어박은 게 아니라 모세에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출3:12) 하시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패망했다고 호통을 치신 것이 아니라 상심해있던 그를 위로하고 보듬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생선을 구워 조반을 쟁겨 먹이시고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으셨습니다. 세 번 아

단을 치셔도 부족했지만 예수님은 베



를 기본 상하게 하고, 인격적으로 모

독하고, 더는 험기나 내고 그러는 사람은 꿀통을 발로 찬 격입니다. 인격이 발로 차이는 순간 발이 돌변하여 인정사정없이 쏘아대는 것처럼, 감정이 상한 사람은 어느 순간 적이 되어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받은 게도 아무 때나 잊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의 지식은 윤리와 도덕은 물론이요, 그를 넘어서 품위와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예절이라는 그릇에 담을 때 그 사람은 존망과 선망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 주위로 사람이 꾸역꾸역 몰릴 것입니다.

지식 있는 자는 부드럽습니다. 지식 있는 자는 위엄은 있으나 위압감은 없습니다. 또한 지식 있는 자는 따뜻합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통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를 상대로 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키라고 하자 모세는 자신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고

로를 따스하게 안으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옵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요 21:17)라고 고백했고, 그는 자원하여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고 뛰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원동력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 연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의 감정의 동물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감정을 건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 년 된 나무를 자르는 데는 십 분이면 된다는 것을 알고, 매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과 아량, 그리고 예절로 사람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자라는 아이들에게 잠언을 자주 읽게 하는 것은 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 안에 인간관계에 대한 지식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잠언을 읽으세요.

셋째, 공부해서 얻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한 마디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말에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자식을 도둑놈으로 만든다”는 말이 있

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가르쳐야 하고, 또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꿈을 품니다. 그러나 그 꿈은 배우지 않으면 그저 백일몽에 불과하게 됩니다. 배움은 꿈에 이르는 수단이고, 목적에 이르는 다리입니다.

우리 옛말에 “배워서 남 주냐?”라는 말

평생직장은 없어도 평생직업은 있다

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배워서 알면 남을 가르칠 수 있고, 배우면 기업을 살릴 수도 있고, 국가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배워서 남 주어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에, 그리고 교회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잠언 19장 2절에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지 못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지식이 수반되지 않는 꿈은 화로 없는 불과 같아 위험천만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없으면 할 일도 없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고, 아는 만큼 내 생활환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는 것이 없으면 눈 뜬 소경이요, 귀머거리입니다. 영어 모르니까 외국에 나가면 정말 눈 뜬 소경입니다. 귀머거리입니다.

젊은이들은 내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배워야 합니다. 지금 좋은 옷 입고, 비싼 커피 마시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 돈으로 한권의 책이라도 더 사서 읽어야 합니다. 그 돈으로 기술 하나라도 더 배워야 하고, 그 돈을 모아 여행을 하며 세계를 배워야 합니다. 놀 시간에 하나라도 더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재산이요, 내일의 밑천이고, 성공의 발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관계의 지식, 배우는 지식, 이 세 가지 중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 삼박자가 고루 갖춰질 때 당신은 영·혼·육에 아름다운 사람, 지적향기가 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민 위에 뛰어날 것이며, 만민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육부재현상은 후진성을 탈피할 수 없다

당히 요구하십시오. 그 분이 아버지니까요.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 나 돈 좀 주세요.”, “아버지, 나 결혼 시켜 주세요.”, “아버지, 차 사 주세요.”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애들이 요구할 때 다스릴 수 있는 것이면 다 해주지 않습니까? 다만 아직 시기가 이르면 ‘기다려’ 하고, 나쁘다 싶으면 ‘안 돼.’ 할 뿐이지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아버지에게 더욱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식도 자주 다가가야 정이 들고, ‘뭐 사 달라’ 하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가끔 평강도 놓는 모자가 더 친근한 법입니다. 아버지에게 말 못할 게 뭐 있고, 더욱이 부자 아버지에게 달래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말도 못하겠거든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고 울어버리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놀라서 “왜 그러냐?” 하실 것입니다.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부르짖어 기도해라

기도는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기도하기를 힘써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도 기도는 의지를 갖고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주의 종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자주 기도할 것을 외치고 강권한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도를 계속하거나, 기도 안하던 자들이 기도를 회복하면 모든 영적인 일들이 활력을 찾게 되고, 영성이 확실히 좋아지게 된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한번 기도 줄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하고 싶지만 몸이 말을 안 들어서'라며,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하며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을 본다. 세월은 가고 머지않아 주님을 만날 텐데 갑갑하다. 외쳐도 외쳐도 소리에 경 읽기인가? 기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속으로 할 수 있고, 조용히 읊조릴 수도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다. 환경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나는 할 수만 있다면, 환경만 된다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될 수 있는 대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가슴이 아프고, 머리가 핑하고, 힘이 든다. 하지만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좀처럼 졸거나 잡다한 생각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집중할 수 있

기에, 기도를 쉬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은밀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미다.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이 얼마나 나왔나 세어보았다. 나의 셴으로는 '기도'라는 단어가 190여회, '부르짖으라'는 단어가 220여회가 기록되었다.

부르짖어 기도해보라. 모세도 홍해를 앞에 놓고 부르짖어 기적을 맞보았고, 아사 왕도 구스의 100만 대군에게 놀라 부르짖어 승리를 맞보았다. 사도행전 4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필박 속에서 소리 높여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터가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고 했다. 시편 107편에도 고난 중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거할 성으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셨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누가복음 18장에도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서 여쭙 대답하지 않으시겠느냐'고 말씀하셨다.

나는 우리 모두가 할 수만 있다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길 원한다. 이것이 응답받는 비결이다. 이적을 체험하는 비결이요, 꾸준히 기도하는 비결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할 수만 있으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서기 바란다. 주님의 얼굴 뵈는 그 날까지...

이시대 목사

내 일을 할 뿐입니다

농부가 포도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말벌과 자고새가 와서는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말벌과 자고새는 물을 먹게 해주면 은혜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자고새는 포도나무를 파주고 말벌은 침을 쏘아 도둑을 쫓아 주겠다고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일을 정말 잘하는 황소가 두 마리 있네. 그런데 그 황소들은 한 번도 나에게 약속을 내세우지 않았지. 너희에게 물을 주느니 그 황소에게 물을 주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네." 가끔 말벌과 자고새 같은 자들을 봅니다. 이것 해주면 저것 해주겠다는 약속을 남발하는 자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약속을 남발한 자들은 동일하게 쉽게 약속을 깨트리기도 합니다. 물을 먹고 난 후에 마음이 변해서 말벌은 주인을 쏘고 달아날 수 있고, 자고새 역시 슬쩍 도망갈 수 있습니다.

요즘 대가성 발원, 대가성 접대, 대가성

금품수수 등으로 정계나 재계는 물론 청렴해야 할 공무원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거래를 유도하는 쪽이나 그것에 현혹되는 자 모두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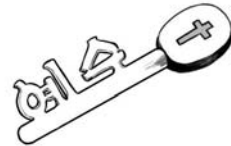
진짜 일꾼은 그런 말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할 뿐이지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어진 일을 하는 자가 남이 볼 때는 우둔하게 보여도 그것이 끝까지 값이 감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출23:8).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신16:19).

예수중심전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

::NewYork Report::

하나님이 지으신 순리대로

현재 한국에서 인기에 방영되고 있는 한 일일드라마에는 동성애 커플이 나온다. 일찍이 2001년에는 환생과 동성애를 내용으로 하는 영화가 개봉되어 네티즌 평점 9점을 넘기며 큰 사랑을 받았고, 이것이 최근에는 뮤지컬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다시 보고 싶은 창작 뮤지컬 1위로 선정될 만큼 성황리에 공연되었습니다. 여러분 중 제가 언급한 드라마를 즐겨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언급한 영화나 뮤지컬을 감명 깊게 보셨습니까?

미디어의 힘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보수적이기로 유명했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공공연하게 동성연애 모티프가 많은 작품들의 전면에 드러나고, 그러한 작품들이 큰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그에 발맞추어 동성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크게 변하여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39%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는데, 2007년의 18%와 비교할 때 큰 폭으로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난 6년 사이 동성애 인식변화의 폭을 가장 크게 보인 나라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층에서 더욱 두드러져, 18~29세에서는

71%가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한번쯤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그럴 기회가 없었다면 이 글이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눈물로 글을 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남자가 남자를 탐하는 것이 순리를 거스르는 것(롬1:27)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자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고전6:10)이라고까지 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있는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조차 이 사실을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영향이 큼니다. 미국에서는 아주 어릴 때부터 동성애는 틀린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장려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교육들을 무차별적으로 받습니다. 3학년이 되면 교과서에 동성애가 등장하며, 매년 10월은 동성애의 달로서, 동성애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교육의 여파 때문인지 이곳에서 자란 젊은 한인 크리스천들 중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는 기독교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동성결혼을 차별하던 결혼보호법이 연방법원에 의해 위헌으로 판결되어 동성결혼 합법화의 물꼬를 텃습니다. 제도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닙니다. 거리를 다니다도 이곳은 그야말로 동성애 천국입니다.

이들이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의미를 담기 위해 무지개를 동성애자 혹은 동성애 지지자의 표식으로 쓰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상징인 무지개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는 먼 나라 일이 아니며 좌시할 일도 아닙니다.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아직까지도 강력하며, 한국은 미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디어를 통해 이미 시작된 일들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미국의 대통령과 의회를 위해, 미국에서 더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법을 만들지 않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행동이란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김슬아

gratiaseul@gmail.com



귀를 기울이세요

한 소년이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까. 소년의 어머니가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자 한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소년의 어머니가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애원을 해도 그 청년은 가만히 서서 소년을 물고리미 바라만 보는 것이었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대던 소년은 잠시 후 추위와 체로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그때서야 비로소 청년은 강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 소년을 구조했습니다. 다행히도 소년은 무사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청년에게 왜 빨리 강물에 들어가서 아들을 구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물속에서 발버둥 칠 때 구조하려 들어가면 그도 물에 빠진 사람과 함께 익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구조하려 들어간 사람을 죽기 살기로 붙고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고난과 위기가 닥쳐올 때, 어떤 사람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든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성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점을 내려놓고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온 물에 힘을 빼야 하는 것처럼, 먼저 우리의 무거운 생각과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재석 전도사

blessedmb@naver.com



조 다니엘 집사(사진 오른쪽) 가족과 함께

저는 속칭 ‘돌대가리’도 못 된다는 ‘강퓔대가리’였습니다. 제 돌대형이 그렇게 빈정대곤 했지요. 돌대가리는 그나마 머릿속에 돌이라도 차있지만, 네 머린 아무것도 없는 ‘빈 강퓔대가리’라고 말입니다. 수학이나 화학 등 시험만 봤다 하면 2, 30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 어머니 이대 출신의 화학 선생님이셨는데 제 성적을 보시곤 시험지를 던져버리셨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내 뱃속에서 저런 녀석이 나왔단 말이나? 네 멋대로 살아라.” 공부할 생각은 없었고 그저 힘만 좋은 저에게 어머니는 집안일 일체를 시켰습니다. 저의 희망이라면 사채업자가 돈을 잘 버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살다가 사채업자나 돼야겠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서 땅을 파던 중에 ‘이 좋은 힘도 평생 갈 수는 없겠지. 사람들이 이래서 공부를 하는 모양이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한 저에게 형이 물었습니다.

“너 공부할래, 돈 벌러 나갈래?”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형은 한국에서 할 건지 미국 가서 할 건지 묻더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집에 있다가는 계속 일만 시킬 것 같아서 무작정 미국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할 수 있는 말이라면 ‘I love you’가 전부였고, 집안의 재정상태도 넉넉한 것이 아니었기에 정말 대책 없는 말이었을 겁니다.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 대사관에 갔습니다. 영사는 서류를 대충 보더니 거부판정을 내렸습니다. 낙심한 저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약국에서 심부름할 때 자주 찾아오던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전해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떠올리며, “성경에 보면 제가 하나님 아들이라 했는데, 아들이 미국으로 도망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러 가겠다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면 한 번 기회를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대사관에 갔습니다. 영사는 재정상태가 유학을 갈 만큼 충분해보이지 않느냐며 돌아가라 했습니다. 저는 억울한 생각도 들고 기도한 것도 있었기에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제 형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하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영사는 자료를 다시 달라고 하더니 뭐라고 뭐라고 서로 이야기하던군요. 그리고 통역관이 전해준 영사의 말에 제 몸은 열어붙었습니다.

“영사님께서 한 번 기회를 주시겠다고

놓입니다. 그런 보잘 것 없는 저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셨던 겁니다. 그것도 제가 기도한 말 그대로 영사의 입에서 나오니 어찌 소름이 돋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후 신나게 미국에 왔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지도에서 찍은 곳이 미국 동부의 필라델피아(Philadelphia)였습니다.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주립대학 어학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영어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날 시험을 보는데 첫날 10문제 중 딱 한 문제, 그것도 선생님이 후하게 봐주셔서 한 문제를 맞혔습니다. 그런데 선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이고, 기적을 만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도구다

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야, 첫날인데 문제를 맞혔구나. 대단하다!”

기가 찰 노릇이었지만, 선생님은 저에게 매일 그렇게 격려해주셨습니다. 그 격려가 힘이 됐는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던 중 형이 전화를 해서 빨리 토폴을 보라고 성화였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려면 토폴 점수가 최소한 500점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해도 300점 넘기기도 벅했습니다.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머리 쳐박고 하나님께 떼쓰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미국까지 보내주셨으면 어떻게 해주셔야죠. 영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에게 정말 희한한 법칙이 생겼습니다. 꼭 시험을 일주일 내지 3일 앞둔 시점만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주시는 겁니다. 당시 저를 전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같은 대학의 간호학과에 다니는 백인 여학생이었습니다. 저의 고충을 들더니 한국 유학생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전화로 통화하는데 자기는 900점을 넘게 받고 왔다고 하더군요. 기가 막혔지만, 그저 따질 때가 아닌지라 비결을 알려 달라 했지요. 그는 500점정도 넘기는 거면 주어, 동사만 구분할 줄 알면 된다고 쉽게 말하더군요. ‘말이 저리 그걸 몰라서 그러나’ 하면서도 감사하단 말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3일 전, 답답한 마음에 책을 펼치고 공부를 하려는데 갑자기 제 눈에 주어, 동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신이 나서 시험 보러 가서도 주어, 동사 문제로만 생각하고 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00점이 넘는 겁니다. 그리하여 미국 온 지 4개월 만에 데

세상의 모든 열등생들을 위하여

합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던 놀입니다. 집에서 내 눈 자식이었고, 희망이 없는 놀이란 소리만 들던

학에 진학하게 되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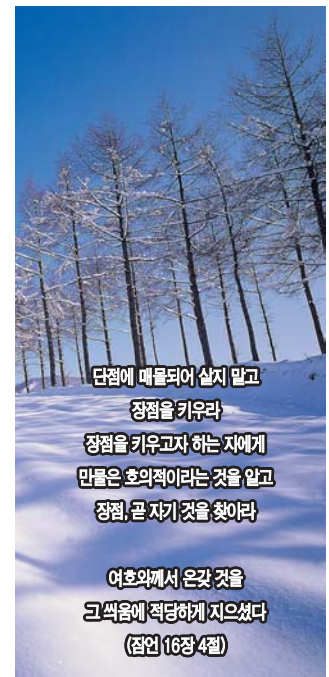
대학에 들어갔지만, 상황은 별로 호전된 게 없었습니다. 영어가 달리니 택할 과목도 마땅치 않았지요. 상담하시는 분이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은 수학을 잘하니 그쪽으로 선택해보라 했습니다. 물론 저는 해당사항이 없었죠. 늘 가서 찍다시피 하고 와서 2, 30점 넘기기도 힘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어찌할 도리 없이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미적분을 배우더군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영어로 수업을 하니 부담은 몇 배 더 가중되었습니다.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머리 쳐박고 하나님께 떼쓰는 일밖에 없었지요. 당시 아직 방언도 몰랐고, 오로지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3월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시험 3일을 앞두고 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머릿속으로 훑 지나가는 것 같더니 미적분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집으로 가서 책을 보는데 문제가

상자나 더 있다고 하기에 달라고 해서 매일 몇 개씩 보았습니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은혜의 나날을 보내던 중, 이 초석 목사님이 뉴욕에 오신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는 매일 차로 필라델피아에서 뉴욕까지 왕복 6시간을 출퇴근하다시피하며 집회 3일을 모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방언도 받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적으로 찾아주셨던 하나님에 대해 목사님은 명료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때부터 더욱 확실히 확신을 가지고, 아바, 엄마에게 구하는 아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화학 시험은 제가 공부한데서만 출제가 되었고, 해부학 시험은 마치 스크린처럼 제 눈앞에 해부학 사진이 펼쳐졌습니다. 밤낮 몇날 며칠을 공부에 매달리는 다른 학생들에겐 정말 미안한 일이었지만, 저는 계속 기도만 하다가 시험 3일전, 일주일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오늘날 치과의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환자들에게 기뻐한 있으면 제 간증을 합니다. 저는 공부 잘하시는 분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공부가 안 돼서 고민하는 학생들, 스스로 낙오자라 생각하며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에게 자신 있게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의 모든 기도에도 응답 해주셨고, 강퓔대가리라든 손가락질만 당하던 저를 미국의 치과의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 간증을 접하는 모든 이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진정한 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미국 달라스 에덴교회
조 다니엘(조항선) 집사



단절에 매몰되어 살지 말고

정점을 키우라

정점을 키우고자 하는 자에게

만물은 호의적이라는 것을 알고

정점, 곧 자기 것을 찾아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씩씩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잠언 16장 4절)